

원자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역할극의 도입
-원자력 관련 갈등 구조 이해 및 해결의 심리학적 접근-

Sociodrama Approach for Enhancing Nuclear Safety

최광식, 김창범, 하연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19

요 약

종래의 원자력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적, 교육 및 홍보 접근방법과는 다른 사회심리학적 방법론의 일환으로 2004년 12월 4개 원전지역주민들과 KINS 직원들의 참여하에 실험적으로 개최한 원자력안전성 향상을 위한 역할극(Role Playing) 혹은 사회극(Sociodrama)의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과제 및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이 사회극 방법론은 원전지역에서 지역주민과 원전사업자의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안으로 그리고 기타 원자력 분야의 복잡한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Abstract

A Role playing or sociodrama has been experimentally conducted among residents from 4 NPP sites in Korea and KINS employees as a psychological approach for enhancing nuclear safety and improving public communication and public confidence in regulator in Dec. 2004. In this paper, the results were analyzed and presented and future plan and area of further study were suggested. This socio-psychological approach can be used as a new communication method for improving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residents and NPP operators at sites. It can be also used to solve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and interest groups in nuclear industry.

1. 서론

원자력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구조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는 각종 집단 및 조직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며 방사능에 대한 대중의 정서적인 반응과도 연관된다. 대중의 정서적 반응은 과학기술자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과 예측불가능성을 지닌다. 종래의 기술자들, 원전규제자 및 운영자들은 원자력안전성과 규제의 문제를 주로 과학기술의 문제로 인식하여 왔다. 즉 기술적인 기준에 따라 공학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원자력전문가들은 일을 추진해 왔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의 책임이라든가 그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그들을 더 많이 교육해야 한다든가 하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대중의 원자력에 대한 반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것은 원자력 추진에 있어 큰 장애요소 중 하나이다. 반대의 이유로는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요소이다. 원자력추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규제자들도 근래에는 원자력의 안전에 대하여 대중들에게 확신을 제공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과 위기감을 느끼고 대중의 신뢰 획득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면 왜 원자력안전에 대하여 국민 혹은 지역주민들은 불안해하는 것일까? 그들은 왜 이 문제에 대해 감성적 혹은 비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일까? 원자력을 둘러싼 이러한 여러 갈등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은 없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이러한 원자력안전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의 차원이 아닌 심리적인 변화를 주어 실제적인 안전성과 함께 체감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원자력안전원)에서 시도한 심리극(psychodrama) 방법론의 이론적 근거와 이러한 심리극 혹은 사회극의 등장배경에 대해 소개하고 원자력 관련기관들의 이해와 갈등구조를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후 역할극의 시행사례 및 시행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향후 적용성 등을 검토하고 이 역할극이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인지적 오류 등을 교정하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003년 8월의 “원자력안전점검의 날”에 기관 내에서 KINS 직원들만으로 역할극을 공연하였고, 12월에는 고리, 영광, 울진, 월성의 4개 발전소 지역 주민과 민간환경감시기구 직원들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역할극 공연을 개최하였다. 이는 규제기관과 지역주민이 사회극(sociodrama) 혹은 역할극(role playing)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서로 역할과 입장 바꾸기를 하여봄으로써 심리적인 차원에서 서로 상대의 정서나 입장을 이해하여 규제자는 규제직무의식을 높이고 지역주민은 규제자의 입장과 그들의 실제적인 업무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체감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개최된 것이다. 또한 11월에는 KINS에서 개최된 IAEA 안전문화 Workshop에서 6개국 참석자들과 함께 역할극을 개최하였는데 그 결과도 함께 검토하였다.

2. 기술적 안전성과 인지 안전성¹⁾

대중이 어느 수준의 원자력안전성을 수용한다면 먼저 안전성에 대하여 그들이 인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공학적으로 계산되고 원자력기술자들이 동의하는 안전성 수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인지하는 안전성 수준이 낮으면 그것은 국민들이 수용하는 안전성이 될 수 없다. 오늘 날 우리 사회에서는 결국 인지안전성이 결정적 역할을 하며 규제기관은 국민에게 원자력시설이 안전하게 운전되고 있다는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인지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중들을 교육한다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하는 것은 결국 이들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지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도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원자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컨대 노심용융확률이니 사망률이니 하는 논의를 해왔지만 이제는 안전인지요인(Safety Perception Factor : SPF)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며 이를 간단한 식으로 표시하여 보기로 한다.

$$S(\text{per}) = S(\text{real}) * \text{SPF}(\text{safety perception factor})$$

where $S(\text{per})$: perceived safety level
 $S(\text{real})$: real safety level(calculated or engineering safety)
 $0 < \text{SPF}$

그러므로 $S(\text{per})$ 을 올리려면 $S(\text{real})$ 을 올리든가 SPF를 향상시키면 된다. 이론적으로는 SPF가 1보다 높으면 $S(\text{real})$ 이 낮더라도 $S(\text{per})$ 이 높으므로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설계에 있어서 큰 경비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SPF가 높다고 하여 공학자들이 실제안전성목표를 낮게 설정한다면 이는 윤리적인 문제가 개재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홍보강화나 교육은 이 SPF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사회의 SPF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향후 연구할 과제라고 하겠다. 이 SPF는 그 사회의 여러 변수들 즉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 사업자에 대한 신뢰, 사회문화적 및 기타 요인들의 함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text{SPF} = f(\text{규제기관에 대한 신뢰, 사업자에 대한 신뢰, ... , 기타 국민들의 정서})$$

3. 역할극(Role Playing)이란 ?

역할극은 심리극(psychodrama)의 범주에 속한다. 심리극이란 1920년 자콥 레비 모레노(Jacob Levy Moreno)에 의하여 제창되었는데, 정신병원에서 환자 치료목적으로 시작한 이 심리극은 자신의 문제를 말로 표현하는 대신에 자발적인 행동으로 문제 상황을 표현하는 자발성, 즉흥성, 창조성이 핵심을 이루는 즉흥극이다. 즉 자발적으로 선택된 주인공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고민, 갈등, 꿈 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고 연기함으로써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심리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집단 프로그램이다. 심리극은 자발적인 행동과 감정표현을 함으로

1) 본고에서는 인지안전성(perceived safety) 혹은 체감안전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한다. 규제의 목적이 어떤 사회적 목표(societal goal) 달성이며 사회적 목표로서 국민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원자력안전성 확보를 설정할 때 그 안전성이란 대중들이 인지한 안전성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미 기존의 여러 문헌들에서 인지 리스크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써 자신의 충동과 그에 관련된 환상, 기억, 투사 등을 깨닫게 한다. 자신의 실제생활, 좌절된 상황, 자기실현의 소망 등의 모든 문제들을 연기를 통하여 표현해 봄으로써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안에서 자기활동을 회복하며 행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심리극의 구성요소로는 자신을 드러낼 **주인공(protagonist)**이 있는데 이는 심리극 연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보조자아(auxiliary ego)**는 주인공과 더불어 극의 진행을 도와주는 인물이며 **연출자(director)**는 심리극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관객(audience)**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자신의 감정을 탐구하는 과정에 일부나마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장소와 무대, 및 간단한 무대소품들이 있다.

심리극의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심리극을 하게 되면 이를 통하여 무의식 속의 자기에 대한 이해 및 통찰을 갖게 되며 보조자아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속에서 자신의 대인관계 양식이 그대로 투사되므로 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역할연기나 역할전환(role reversal)을 통하여 현재 행동을 보완해 줄 대안적 행동을 익힐 수 있다. 심리극은 실제 사람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이 연기한다는 역동성 때문에 참여자들의 몰입도가 높고 다른 입장을 자신이 연기하여 숨어있던 갈등을 끄집어내어 표출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자신의 인식과 의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 할 수 있게 되므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역할극은 사회극(Sociodrama)이라고도 한다.

4. 원자력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의 이해와 갈등구조

원자력과 관련된 기관 단체들은 대단히 복잡한 이해와 갈등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를 다음에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우선 **원자력사업자**는 원전의 설계, 건설 및 운영을 하여 이윤을 창출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며 전력시장에서 다른 발전소들과 경쟁하여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안전성보다는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성향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를 정부규제기관이 규제활동으로 견제하고 있는데, 전력사업자가 공기업일 경우 자신들이 짚 전력을 생산하는 것 역시 공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짚 전력 생산이라는 공익과 국민을 위한 원자력안전성이라는 공익의 추구 사이에 상충이 일어난다. 이들은 원전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대면하면서 일을 추진해나가야 할 어려운 입장에 있다.

규제기관은 지역주민과 국민을 위하여 원전건설과 운영에 개입하여 규제활동을 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사업자의 업무에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사업자는 규제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원전산업이 침체되면 원자력 규제기관도 축소된다는 측면에서는 조직의 속성상 심정적으로 일부 원자력진흥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규제비용 형태로 사업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규제전문기관의 운영비를 상당 부분 충당하고 있는데 적절한 제도적인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것이 규제기관에 대한 불신의 근거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지역주민은 자신의 거주지역에 원전이 건설됨으로써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집단이다. 이들은 원전 건설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으나 이것도 원전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어 지역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존재한다. 타 지역 사람들로 이루어진 원전운전집단 즉 원전직원들과도 갈등관계에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주거지에 들어와 별도로 사택단지를 이루어 섬처럼 떠 있는 그들에 대해 이질감과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 원전에 취업을 한 사람 및 주변의 식당 등 영업하는 사람들은 일부 이들로부터 소득을 얻고 있으나 이들 중에도 종전에 자신들이 하던 어업이 좋았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에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형 산업시설인 원전이 들어선 사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며 건설당시 정부가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데 대하여 실망하고 있고 이미 건설된 원전을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데 대한 좌절감 혹은 절망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원전운영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하여 불안감을 갖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기술자들 및 규제자들의 말을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다. 2004년 1월 갯벌을 통한 조사결과 이들은 원전사고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규제기관보다 NGO들을 더욱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일반국민은 지역주민보다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이해관계가 적으나 사고 시 피해의 광역성에 대해서 언론매체를 통하여 들어 알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원자력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원전이라는 혐오시설이 자신들로부터는 거리 상 멀리 떨어져 있고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공급의 혜택을 직접적인 피해 없이 받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큰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원전을 적극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측면에서 일반국민과 지역주민은 차별화된다.

언론기관은 원자력사업자와 정부규제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도 다른 언론사와 취재 및 보도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으며 이는 선정적인 보도를 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의 정지나 사고 혹은 주민들의 반대데모 등이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언론에 보도되는 원자력은 거의 문제점이 있는 원전이다. 이는 국민들에게 원전은 문제만 일으키며 불안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 그들은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근거로 취재하여 보도하지만 언론사들이 필요로 할 때에 이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조직 내에서 사실 확인, 결재라인을 밟는 등 제약요인이 있으므로 마감시간에 경쟁적으로 쫓기는 기자들은 환경단체들의 자료를 많이 활용한다.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그들은 추측보도나 때로는 본의가 아니겠지만 과장보도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은 때로 불만스러워 한다.

연구기관은 원전사업자로부터 연구비를 받으며 원자력시설이 늘어나야 연구과제도 증가하므로 기본적으로 원전의 이용진흥에 이해를 같이 한다. 이들은 교육받은 집단으로서 전문지식과 높은 지적 수준을 갖고 있다. 대개 지식인들은 지역주민들의 피해나 정서와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학문이나 지식의 진화에만 관심을 갖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원자력 정서에 대해서는 원자력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편이다.

대학교는 대학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되는데 대학교수들은 학생을 졸업, 취업시켜야 하므로 근본적으로 원자력의 이용진흥을 바라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정서에 대해서는 일부 심정적으로 동조하지만 대중수용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지속적인 원자력진흥이 가능하다는 정도라고 파악된다. 그리고 이들은 규제기관측의 과제를 수락하며 각종 위원회 등 안전관련 정책결정의 자문에도 여러 형태로 참여하는 동시에 원전사업자의 재원으로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수행에 있어 사업자의 이익을 생각하기도 하는 한편 규제 측의 일을 함으로써 대중의 편에 서기도 하는데 이는 소위 이해의 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학생들은 아직 원자력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나 대학교 전반적인 분위기인 반원전 정서를 일부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NGO는 사회에서 정부의 규제기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스스로 자발성을 가지고 감시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로서 지역주민을 지원한다. 이들은 다른 NGO들과 때로는 협조관계 때로는 경합관계에 있는데 자기 조직의 존재이유와 선명성을 보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방법적으로 원전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려는 성향을 갖는다. 그리고 조직자체의 존립과 번영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특성상 원전이 충분히 안전하다거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5. 갈등구조의 이해와 해결

일반적으로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나 심리적 기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갈등상황들은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될 수 있는데(Pinkley 1990), 첫째 관계 대 과업 차원, 둘째 감정 대 인지차원, 세 번째 승패 대 타협차원이다. **전문적인 중재자들은 갈등을 과업상의 문제, 인지상의 문제, 타협할 수 있는 문제로 지각하지만 갈등 당사자들은 관계상의 문제, 감정적인 문제, 승패로 해결될 문제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 세 가지 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원자력과 관련된 갈등은 먼저 지금까지 원자력종사자나 정부당국은 이를 금전이나 소유권 문제 보상 문제 등의 비인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인지하고 보상에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보상을 더 타내기 위해 서라거나 주민들끼리의 보상금의 차등성에 반대의 주된 원인이 있다는 식, 즉 **과업상의 문제로 접근**하는 반면 주민들은 반드시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두 번째로, 당국이나 원전사업자는 이 갈등을 원자력이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거나 국가적인 에너지안보차원에서 원자력을 해야 한다는 사고나 신념 혹은 사실 등에 초점을 두고 이를 강조 설득하려고 하는 반면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자기 지역에 원전을 지은 것에 대한 분노, 그러한 현상을 자신들이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좌절감, 정부가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다, 속았다, 배반당했다, 우리만 피해를 본다 등의 감정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국은 이 갈등을 보상을 통한(이에는 다른 대형건설사업 끼워주기 등도 포함된다) 타협이나 상호 합의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하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이 양보하느냐 상대가 양보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누가 책임지고 사과해야 하는 상황으로 파악한다고 볼 수 있다.

기관	역할 및 업무	비 고
정부규제기관(1)	국민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자를 규제	
원자력사업자(2)	원전을 건설, 운영	
하청업체(3)	계약에 의해 원전사업자의 업무를 수행	
연구기관(4)	원자력관련 연구수행 (사업자 측 연구비 및 정부예산 사용)	
대학교 (인력배출기관)(5)	인력을 배출하여 1,2,3,4에 공급, 1,2,3,4로부터 수탁 연구 수행	
지역주민(6)	해당 원전지역에 거주, 원전안전문제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일반국민(7)	생산전력을 소비하며 세금으로 규제기관 예산을 부담. 원자력안전성의 최종소비자이며 규제기관의 고객	
언론(8)	원자력에 대한 취재 및 보도 - 국민에게 공급	타 언론사들과 취재 경합관계
NGO(9)	민간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안전성 감시활동 수행	

표 1. 원자력관련 조직 및 단체의 이해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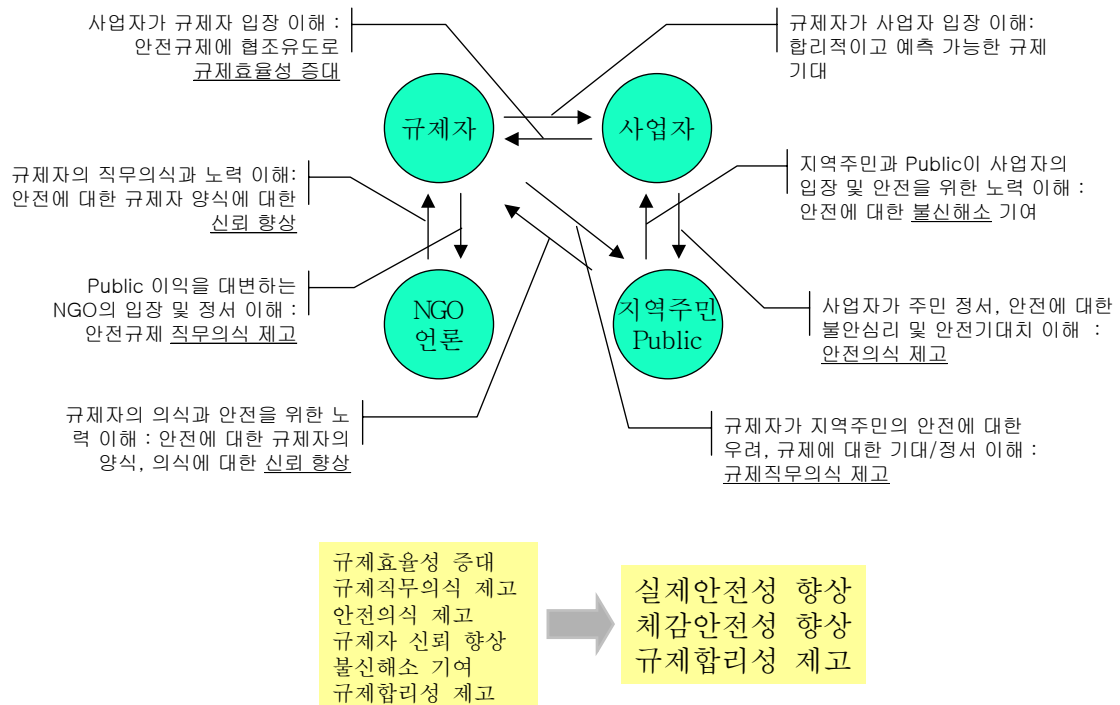


그림 1 역할극의 기대효과

갈등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모두들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로 **갈등 인지상의 오류들**이 지적되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비양립성의 오류**(Thompson & Hastie 1990)이다. 이것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갈등의 측면을 상대방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향인데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기인한다. 따라서 자기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중요한 것을 양보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극한적인 주장만을 하게 되며 그 결과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둘째는 **투명성과장외의 오류**이다. 이는 자신의 동기과 목표를 상대방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예컨대 자신이 강하게 나가지만 실제 마음속으로는 타협하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되며 갈등이 해결이 안되고 악화될 소지가 크다 (Vorauer & Claude, 1998)

셋째는 **거울적 사고**인데 이는 이쪽은 상대방을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고 상대방은 역시 이쪽을 나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Bronfenbrenner, 1961). 이는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고 옳은 자신을 반대하는 상대방은 악할 수밖에 없다는 흑백론적 사고가 갈등상황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서로 상대를 악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며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는 자신들에게 취하지 못할 행동을 상대방에게는 취하게 된다 (Rothbart & Hallmark, 1988).

그리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서(사업자나 당국) 많이 나타나는 것이 **소박한 현실론**(Robinson 등, 1995)인데, 이는 자신들은 남들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반면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나는 공평한 행위를 많이 하며 다른 이들은 불공평한 일을 많이 한다고 여긴다(Messick 등, 1985)는 것이다.

그리고 역할행위와 개인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함으로써 그 사람이 직책상 나에게 한 행위를 나 자신 개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자아중심성**이 있는데 이것이 갈등관계에 처한 사람들이 상대방을 서로 적대시하게 되는 과정의 기저에 놓인 심리작용이라고 한다(이수원, 1993).

이같이 갈등상황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특성은 당사자 각각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면서 갈등을 심화시킨다. 갈등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서 현안해결을 위하여 투입된 노력이 커진 경우에 이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매몰비용(sunk cost)효과**가 더욱 현안 해결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갈등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증거는 **결과의 공정성과 절차의 공정성**이다. 일반적으로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분배정의의 판단에서 자기 위주의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한편 절차의 공정성에서는 사람들은 절차적용의 일관성, 정확성 및 조정의 기회가 있는지를 따진다. 갈등상황의 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으로는 공동목표의 설정, 긴장의 점진적 감소책(GRIT : Graduated Reciprocation in Tension Reduction), 중재 및 조정 등이 있다.²⁾

위에서 살펴본 갈등구조를 이루는 인지적 오류들 중에서 역할극(Role playing) 혹은 사회극(Sociodrama)을 하면서 서로 역할 바꾸기(Role reversal)를 할 경우에 연기행위를 통하여 상대방을 마음속으로부터 이해하는 작용이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로써 비양립성의 오류, 투명성과장외의 오류, 거울적 사고, 소박한 현실론, 사회적 자아중심성 등의 오류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2) 이 부분은 한규석 저 '사회심리학의 이해'를 많이 참고로 하였다.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대한 전문적, 이론적, 심리학적인 분석은 향후 별도로 시도해 보기로 한다.

이 역할바꾸기 연기는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기주장을 일단 중지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 볼 만큼 자기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보다 넓은 시각에서 상황을 고려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의 목표는 다른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져야한다는 (소위 zero-sum game) 생각을 벗어나 함께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사실 한 사람이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역할 바꾸기의 목표는 이러한 유아적인 태도로부터 벗어나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로운 타협을 추구하는데 있다.

6. 역할극 진행 내용

2003년 12월 2일 오후 3시 원자력안전기술원 대강당에서 가수 이정현의 노래 “바뀌”, 김건모의 “핑계”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4개 원전 지역 주민대표들과 KINS 직원들간의 역할극이 개최되었다. 본 역할극은 전문심리극단원과 KINS 직원들이 주어진 대본에 의해서 공연하는 시범극과 시범극에서 보여준 상황 및 그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관객의 제안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자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이루어지는 즉흥극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주요 장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KINS 직원들과 전문심리극단의 시범극 공연

(장면2)

주민들(별자리사회심리극단 단원들 출연)이 무대에 등장하면서 푸념을 늘어놓는다.

“지네들이 우리를 위해 규제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곳에 자기들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뭘때미 우리에게 신경 써서 검사해 주겠어...”

“환경단체에 도움을 청하라구... 그들은 우리를 위해 일해 준다구... 고맙지. 돈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누가 우릴 위해 그렇게 일해 주겠어?”

글쎄다... 두고 봅시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있간디? 그나저나 오늘도 노가다 일에 빠 빠지겠네. 이 신세 언제나 면하나. 농산물은 안 팔리고, 땅값은 개 값이고... 원자력발전소 근처 살았다고 딸 녀석 시집이나 제대로 보낼 수 있을지... 휴우...

(장면5)

KINS 직원이 주민들 앞에서 원전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 방사선이 기준치 이내로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열심히 설명하지만 주민들은 기술적인 용어들을 알아듣지 못한다.

규제자(KINS 신대수 PM 분)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철저한 규제를 통해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주민1 : 말로만 철저하게 철저하게... 규제한다면서 지금까지 원전의 가동을 중지시킨 적 있어요? 있어요?

주민2: 맞아요~~ 아까 설명 중에 원전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왜 가동을 계속시키죠?

규제자: 방사선이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주민1: 아니~ 뻑하면 무조건 기준치 이내, 기준치 이내... (언성을 높이며) 그러지 말고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 못해요?

규제자: (화난 듯 목소리 높이며) 좀 전에 한 브리핑 못 들으셨어요? 기준치 이내였다고 했잖아요.

주민1: 아니 근데 근데 왜 큰소리야? 당신이 왜 큰소리를 쳐?

주민2: 저거 봐~ 한수원이랑 한통속이라니까? 말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 결국 한수원이랑 짜고 고스톱 치는 거 아니냐구?

주민들: 맞아~ 그게 우리의 목소리를 수용할 자세야? 당신들 좀 반성 좀 하라구. 알겠어?(아우성)

이때 무대위로 규제자 내면의 상반된 생각들을 대변하는 이중자아가 둘 등장한다. 이 이중자아(double)란 심리극 혹은 사회극에서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이다.

이중자아1(규제자에게) : 아~ 저 사람들 정말 무식하구만.. 저렇게 무식해두 되는 거야? 그만큼 설명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규제자: 그치.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하냐구..

이중자아2(규제자에게) : 주민들 입장에선 당연히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용어가 어렵지..

규제자: 정말 힘들구만... 힘들어.. 도대체 나더러 어떻게 설명하라는 거야?

주민들 무대중앙에 머리띠를 두르고 무대 뒤에서 나와 규제자를 에워싼다.

주민대표: 한수원은 이 지역의 원전을 즉각 폐쇄하라 ! KINS는 각성하라~~
주민들: 각성하라~ 각성하라~ 원전반대~~ 원전반대~
규제자: (고민하다가 소리친다) 그만! 대체 날더러 어찌란 말이야.



반대 성토했던 주민들과 절규하는 규제자 (KINS 신대수 PM)

나. 즉흥극 공연

시범극 후 객석의 영광, 고리, 월성, 울진 지역주민들과 KINS 직원들의 본 역할극에 대한 느낌에 대한 발언이 있었으며, 그 후 별자리심리극연구소 김영한소장의 진행으로 무대 위로 객석 중에서 KINS 직원 2사람(이종인 전문위원, 규제부 하종태 PM)과 고리 민간환경감시센터 최선수센터장, 월성원전 지역의 양북면의 정창교씨와 양남면의 김재금씨가 올라와서 심리극단 단원들과 함께 즉흥극을 하였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입장에서 사업자(별자리심리극단원 분)를 앞에 불러다 놓고 따지던 최선수센터장은 진행자가 사업자 측과 역할을 바꾸라고 하자 앉은 자리를 서로 바꾸고는 이제는 원전사업소장이 되어 방어하는 입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종인 KINS 전문위원이 KINS 측 전문가로 나와서 답변을 하다가 다시 진행자의 인도에 따라 민간환경감시기구 입장이 되어보았고 그리고 최선수센터장이 다시 규제자인 KINS 직원 자리에 앉아 그 입장이 되어 답변을 하는 등 역할교대(Role reversal)기법이 사용되어 즉흥극이 진행되었다. 이 즉흥극 후 참여자, 관객들이 참여하여 느낀 점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나누기(sharing) 시간을 가졌다.

7. 역할극에 대한 반응과 평가

가. 역할극에 대한 반응

이 역할극은 2003년 그 준비과정에서 위도와 부안군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다. 즉 지역주민들과 언론사에서는 역할극이 이 현안문제를 풀기 위한 원자력계의 전방위적인 노력 혹은 활동의 일환으로서 KINS가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먼저 보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KINS 역할극의 목적은 원자력안전성의 향상이었다. 즉 KINS가 규제업무를 하는 것이 지역주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KINS 직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우려와 불안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KINS 직원의 업무의식을 높이고 그것은 우리의 안전문화 향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규제기관에 와서 규제자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은 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줄임으로써 그들의 체감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것은 원자력안전이라는 공공재화를 제공하여 국민을 안심시킨다는 정부규제의 정치경제적인 목적과 일치한다.

역할극(Role playing)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으나 심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가 있지 않고는 그 목적과 시행내용에 대해 실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지역을 방문하여 역할극을 설명하기 시작할 때는 KINS를 알리기 위한 단순 홍보목적 정도로 생각하던 분들도, 약 1시간 정도 설명하면 거의 대부분이 흥미를 가지고 이해를 하였다. 어떤 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시도해 볼 것을 고려하기도 하였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군민 혹은 시민들을 위하여 일반 분야에 이러한 역할극을 시도해 볼 의향을 비치기도 하였다.

그동안 접촉한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인 KINS가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다가와서 지역주민의 정서를 이해하고 체험하여 원자력안전성에 대한 직무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 결과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중심으로 4개 지역 모두가 KINS에서 개최된 본 역할극에 참여하였다.

나. 역할극에 대한 비판

이 KINS의 이번 역할극에 대한 기관 내부와 외부의 비판론도 있었다. 이것이 대외 과시성 행사가 아니냐, 즉 한바탕 쇼에 불과하였다는 강한 비판으로부터 그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겠다는 의견,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KINS가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놓고 KINS의 과거 일부 있었던 부정적인 면을 과장하여 보여주었다는 비판, 충분히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참여자들이 warm-up이 되지 못하여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내 놓지 못하였다는 지적, 정작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놓고 KINS 간부들은 역할을 바꾸어 변화하고자 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지적, 그리고 이러한 역할극 방법론이 분명 좋은 수단이기는 하지만 KINS가 아직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초청하여 이러한 행사를 한 것이 시기상조였고 부적절하였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처음 시도한 이 역할극에 대하여 지적과 비판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든 행사는 약간은 쇼의 성격을 갖는데 공연이라는 형태를 빌릴 때는 더욱 그러하고 무대에 올려질 때는 극의 성격상 또 약간 과장된다. KINS의 부정적인 일면이 공개적으로 거침없이 연기자들의 입과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는데 대하여 일부 직원들은 마음이 편치 못하였을 것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참여자들

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놓고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소’ 하고 좋은 면만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큰 의미가 없으며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들이 과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지도 않을 것이다. 원자력분야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긍정적인 면만을 홍보해 온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외국의 반응과 평가

2003년 9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 기술회의 “원자력안전문화 향상에 있어서의 정부와 규제기관의 역할”에 참석하여 각국의 규제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본인이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사회심리학적 한 방법으로서 역할극을 소개 발표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한 11월 10일 한국의 KINS에서 개최된 “IAEA 아시아지역 안전문화 훈련 워크샵”에서 영어로 대본을 준비하여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6개국 참가자들과 IAEA 안전부 직원, WANO 안전문화 담당자들이 전원 참여하는 역할극(즉흥극 포함)을 실시하였고, 참가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원자력안전 분야 업무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향상과 안전문화 향상이라는 훈련 목적 달성에 유익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IAEA의 본 워크샵 과정 책임자는 IAEA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 향후 IAEA 훈련과정에 이러한 사회극(Sociodrama) 방법론의 사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³⁾.

또한 2004년 3월 10일 미국 NRC의 16차 규제정보회의에서 이 규제기관과 국민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역할극에 대해 소개한 바 있고, OECD/NEA가 2004년 5월 18일 개최 예정인 ‘규제자에 대한 대중신뢰의 구축, 측정 및 개선’이라는 워크샵에 발표를 요청받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오고 있다.

라.종합평가 및 향후 방향

본 역할극 시행에 대한 자체평가 및 외부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역할극은 원자력안전성 향상을 위한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역주민과 원자력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증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지속적으로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80년의 역사를 가진 심리극은 병원, 교육분야, 청소년문제, 가족문제, 직장 내 갈등, 사회적 갈등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여러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오고 있어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어 원자력분야에서 여러 가지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Travel Report by Terry Taylor, IAEA Safety Culture Specialist, to IAEA Director General on "IAEA EBP Safety Culture Training Workshop for SE Asia Regional Group(Daejon, Nov.10 - 14,2003).

"The use of Sociodrama was considered to be very successful in not only "ice-breaking"but also in giving participant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ssues involved in safety culture development. A Video was produced of the activity and this is available for review from the IAEA Safety Culture Group. It is recommended that the IAEA explore the wider use of Sociodrama in its training events.

두 번째, 이 역할극은 그냥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심층부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그 시행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충분한 준비와 숙련된 진행자(director)의 진행이 필요하고 그에 의하여 참여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익숙해지는 충분한 warming up이 필수적이며 마친 후에 의견을 함께 나누고 정리하는 나누기(sharing)가 중요하다. 8월과 11월의 역할극에서는 warming up을 가졌으나 12월의 역할극에서는 공간의 제약 상 이것 없이 바로 역할극을 하였는데 참여자들의 마음의 문이 충분히 열리지 않아 반응과 참여가 미흡하여 그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들이었다. 또한 심리적으로 고양시킨 후에 이를 잘 정리하고 풀어주는 것은 사람들의 집단심리상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므로 더욱 전문 진행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11월 아시아지역 원자력안전담당자들 전원이 참여한 역할극은 시범공연 없이 바로 대본에 따라 연기를 하고 그때그때 즉흥 역할극을 하였는데 그 반응이 가장 좋았다.

세 번째, 이 역할극은 참여자 수가 많거나 관객석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경우보다는 적정 인원의 참여 하에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무대에서 대본에 따라 시범극을 공연한 후 즉흥극 없이 그것을 관람한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원전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 하에 역할극을 할 경우는 이런 방식이 좋을 것이다.

네 번째, 원자력분야에서 갈등이 많이 증폭되어 격양된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따른다. 사회극 창시자인 모레노의 경우 뉴욕에서 흑백간 첨예한 갈등이 있었을 때 이러한 사회극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한 바 있다. 이 경우는 진행자의 역량에 따라 사회극 중에서 참여자들의 감정들을 고양시키고 폭발시켜 카타르시스와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으나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불안군 사태처럼 감정의 골이 크고 갈등이 증폭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을 이런 역할극 자리에 끌어내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심리적 고양이나 감정의 분출들을 잘 정리하지 못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원전지역에서 당장은 큰 현안이 없을 경우 미리 상호이해와 인식의 증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원전 사업자와 지역주민간의 정례적인 역할극은 시행할 경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전반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8. 결론 및 향후 과제

원자력 안전규제는 국민을 대신하여 규제활동을 하여 원자력사업자들의 전력생산 활동에 개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용가능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확보된 원자력안전성이 국민들에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성과 관련하여 사업자, 규제기관, 지역주민, 일반대중, 언론 및 NGO 등간에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래에 규제가 국민에게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 혹은 impact(사회심리적인 안심, 체감안전성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느낌, 그들이 인지하는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 등 정서적인 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졌다. 원자력 안전성 증진을 위한 방법의 일

환으로 이러한 사회심리학적 접근은 시도해볼 만하다. 또한 극중에서 역할바꾸기가 어떤 메카니즘으로 사람들의 인지적 오류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심리학전문가들과 함께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심리극 창시자인 조셉 모레노는 이 사회극을 통하여 사람들이 마음속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개발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의 내면세계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이 방법론은 심리학적인 근거와 수십년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서 원자력안전성 향상과 그것에 대한 대중신뢰(Public confidence)의 확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원자력규제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이 사회극 방법론은 원자력분야에서 홍보와 교육 등 다른 여러 노력과 함께 계속 시험해 볼 가치가 있다.

KINS와 지역주민과의 이러한 역할극 혹은 사회극(sociodrama)을 통한 만남은 사회심리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무대에서 만난 “새로운 만남”이었다. 앞으로 이 방법론은 원자력사업자와 KINS 간에 30명 정도 인원이 참여하여 역할극을 개최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에도 시도해 볼 예정인데 이 경우는 전문극단의 도움 없이 심리극 진행자에 의해 대본을 가지고 혹은 바로 사회극으로 들어갈 것이며 이를 통하여 규제자는 보다 합리적인 규제를 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규제에 보다 협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반핵입장을 견지하는 NGO들과 KINS간의 역할극도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12월의 역할극 공연 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이러한 시범극을 원전 현장을 순회하면서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의 참여 하에 개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⁴⁾.

원자력에 대한 불신과 갈등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그 해결을 위해 여러 각도의 노력과 시도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원자력안전의 문제를 푸는 해법은 다양하게 추구되어야 하고, 또한 어떤 작은 아이디어나 가능성도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역할극은 그러한 여러 방법 중 하나이며, 그런 측면에서 이 사회극 혹은 역할극에 원자력분야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1995.
2. 조성희, 김광운 역, “사회극을 통한 우리들의 만남”, 학지사, 1999.
3. Patricia Sternberg & Antonina Garcia, “Sociodrama: Who’s in your shoes?”, Greenwood publishing Group, Inc., 1989.

4) 이 경우 시범극은 참가자의 참여와 역할 교대는 없이 연극 프로그램으로서만 진행하고 연극 관람 이후 참가자들이 그 자리에서 각자의 느낌을 말하도록 하고 끝내는 것이 좋다. 충분한 정서 체험 없이는 역할 교대가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참가자의 역할 참여 없이는 사회극 범주에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